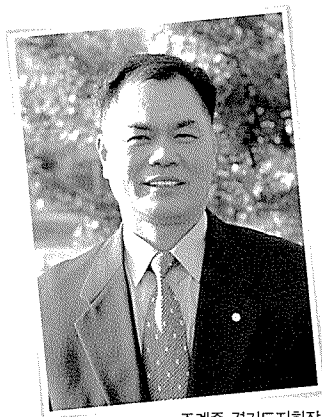


2005년을 제 2의 도약기로 선언한 경기도지회

작은 뿌리가 모여 이룬 큰 나무

(사)대한제과협회의 주춧돌인 전국의 지회 지부를 소개하는 '지회지부 탐방'. 이번 호에서는 12개 지부를 거느린 거대 지회로 제 2의 도약을 꿈꾸는 경기도지회를 찾았다. 새로운 지부 창립과 더불어 각 지부의 독립 경영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기도 제과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지회의 활동을 함께 들여다본다. 글_허윤정 기자·사진_주현진



조계중 경기도지회장



서울을 감싸고 있는 31개 시(市)와 군(郡)이 모인 경기도. 서울과 근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발전이 더딘 편이다. 제과업계에서도 경기도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적 특징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해 지역 특성이 스며있는 제과문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새롭게 창립한 시흥시지부를 포함해 이제 12개로 늘어난 지부를 거느린 경기도지회가 제 2의 도약을 위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지회의 조직은 지회장과 5명의 부지회장, 2명의 감사와 5명의 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올해로 결성된 지 10년째인 경기도지회의 주 업무는 각 지부의 활발한 활동을 독려해 경기도 제과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조계중 지회장은 “모든 지부가 독자적으로 훌륭하게 운영되어야 경기도지회의 미래가 밝은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지부 관리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단합만을 강요하거나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작은 목소리를 합쳐 지회를 위한 주장 피력

경기도지회는 2달에 한번 모여 모든 지부장과 사무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회의의 주제는 매달 다르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언제나 '경기도 제과업계의 발전'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지난 10월 4일 11명의 지부장과 사무장들이 모인 가운데 안산시지부에서 열린 회의의 주제는 경기도지회의 독립운영에 관한 사항이었다.

경기도지회는 현재 수원시지부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독립적인 업무를 보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원래 각 도지회의 경우 도청소재지가 있는 지부와 겹쳤지만 작년에 바뀐 정관은 지방에서도 자유롭게 도지회 소재지를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경기도지회는 독립적인 지부를 총괄하고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무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의 각 지부에서 이에 대해 방안을 모색 중이며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독립적인 경기도지회의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어느새 정리된 의견들은 한목소리로 모아졌다. 허천웅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은 지부장들에 대해 “회의 때는 서로 날카롭게 주장을 펴는 편”이라며 “사심없이 지회 발전을 위한 논쟁이라 평소에는 지부장들끼리 서로 무척 친하다”고 전했다.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의견들을 주고받지만 김영모 중앙회 회장의 방문으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모두 경기

“세분화되고 독립적인 각 지부들이 모여 하나의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지회. 앞으로 새 식구를 맞이할 경기도지회의 2005년 활약을 기대해본다.”

흥시지부가 창립한 것이다. 경기도지회는 그동안 시흥시지부를 비롯해 용인, 고양, 광명시지부의 창립을 추진해왔다. 세 곳 모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제과점이 많이 생겨 독립적인 지부가 필요해서다.

올해부터 실시된 기존업주 위생 보수교육 또한 11개 지부에서 경기도 관내 31개 시, 군에 있는 제과점을 모두 책임졌는데 워낙 회원수가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 일산 지역 제과점은 부천에서, 용인 지역 제과점은 수원에서 교육을 도맡아 했지만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기는 힘들었다. 신규 위생교육 또한 서울에서



1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및 각 지부 사무장들. 오산, 평택, 안산, 의정부, 수원, 군포·의왕, 남양주, 안양, 성남, 부천시지부 사무장(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과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사진 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 2 경기도지회에서 2달에 한 번 개최되는 회의에 모인 11개 지부 지부장들과 사무장들. 3 10월 4일 열린 시흥시지부 창립총회에는 중앙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경기도지회의 지부장, 사무장이 모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도지회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화두가 됐던 사항은 경기도지회에 대한 치우 개선에 관한 것. 다른 도지회보다 월등히 많은 지부와 회원수를 고려한다면 협회 임원 배치나 세미나 개최 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부장들의 의견을 들은 김영모 회장은 “(사) 대한제과협회는 지부, 지회, 중앙회로 이어지는 종적인 조직”이라며 “동일선상에 있는 지회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모 회장은 이어 “다른 지회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경기도지회의 규모에 알맞은 배려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지부 창립으로 다지는 지회의 결속

지부장 회의와 간담회가 열린 10월 4일은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다. 오랫동안 염원해오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준비 끝에 시

는 두 달에 한 번 열리지만 경기도에서는 매달 한번 씩 개최할 정도로 제과점 업주가 많은 상황이다. 경기도지회는 앞으로 해당 지역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이를 지부 창립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지부 창립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조직되면 경기도지회에서 지부 설립을 위한 갖가지 준수 사항과 유용한 정보를 알려준다. 그 뒤 체계적인 준비가 모두 갖춰지면 중앙회에 정식으로 지부 창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경기도지회의 역할이다. 12번째 식구를 맞은 경기도지회의 2005년 사업 방향에 대해 조계중 지회장은 “덩치만 큰 지회가 아닌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실속 있는 지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분화되고 독립적인 각 지부들이 모여 하나의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지회. 앞으로 새 식구를 맞이할 경기도지회의 2005년 활약을 기대해본다.